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2013. 8. 29.)

새로운 성장 (황철주 대표)의 토론자료

충남대학교 강 용

1. 새로운 성장주제의 강연을 매우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황 대표님의 강연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선 변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주셨는데 이 차별화된 변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창조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나 현장에서의 창조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상적인 교육보다는 별도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황 대표님께서서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교육과 훈련을 해야 효과적인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창조의 가치는 시장의 기득권보다 크므로 창조의 행위는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황 대표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창조의 행위 못지않게, 현재의 상황을 재편성하고 정리하며 시스템을 재구성함으로써 창조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창조경제의 개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차별화 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경제의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간 산업분야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황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부존자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력의 훈련과 교육이 성장을 위한 창조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감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각 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약 6000 억원 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각 개별기업의 훈련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차원의 유능한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경험과 공학적 훈련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능력 고취와 자립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에 필수적인 공학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황 대표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4. (주)주성에서는 R&D 결과에 의한 기술개발을 제품개발로 연계하여 이것이 지속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를 창조적 R&D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R&D가 모두 제품개발로 연계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주)주성에서 R&D와 제품개발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R&D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OECD국가들 중 R&D투자 부문의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R&D의 결과를 기업화 하거나 제품으로 연계하는 비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R&D의 결과를 기업화나 제품개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R&D결과 도출된 기술의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황 대표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